



한국틴스타

2014년 6월
제38호

www.teenstar.or.kr



햇살사이로 부는 꽃바람에 문득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틴스타 선생님께,

어느덧 틴스타와 인연을 맺고 살아온 10년이 바람결처럼 느껴집니다. 처음 틴스타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던 질문에 '〈몸의 신학〉을 도와주세요!' 하셨던 배 마리진 수녀님의 요청에 '틴스타 선생님들이 모두 몸의 신학자가 될 때까지 도와 드리겠다'고 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4년 오늘의 세상에는 참으로 많고 복잡한 상황들로 가득합니다. 더욱이 최근에 세월호에서 사고 당한 청소년의 소식은 우리 국민에게 큰 슬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어른들의 욕심과 무능력으로 말미암은 이 사고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 우리를 혼돈과 곤란으로 빠뜨리는 상황은 선실에 남아 기다리라는 말에 따라 자리를 지킨 사람은 희생되었고, 말을 따르지 않고 자리를 떠난 사람은 구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순간에 맞이하게 된 특별한 선택에 대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의 답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특별한 선택으로 자리에 남은 학생들과 자리를 떠난 학생들에게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들려온 또 다른 소식은 세 분 교황님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올 여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한 소식과 두 분 교황님 요한 23세와 요한 바오로 2세의 시성식

입니다. 그중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시성은 우리가 하고 있는 틴스타 교사로서의 활동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더욱 투신할 것을 고무시키는 놀라운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또한 그분의 가르침은 슬픔과 혼돈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틴스타 교사로서 〈몸의 신학〉 안에서 배우고 나눈 것을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 안에서 하느님은 인간을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록 하느님은 아니지만, 하느님다운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도 참된 생명으로 존재하고, 인간은 하느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며, 하느님처럼 자유를 지닌 존재이고, 아버지 다움과 어머니다움으로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창조된 인간은 근원적으로 고요한 인격과 자유를 가진 존재이며(시원적 고독의 체험), 전적으로 사랑하고 일치할 수 있는 존재이며(시원적 일치의 체험)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고 하느님과 더불어 이웃들과 친구를 이룰 수 있는 존재입니다(벌거벗음의 체험). 이것은 또한 우리 틴스타 교사들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청소년들과 부모들 역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틴스타 교사의 기본적인 태도여야 합니다.

〈몸의 신학〉은 계속해서 혼돈과 타락의 역사적 인간체협의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불순명과 교만으로 드러나는 인간적 욕심과 자비하신 하느님에 대한 무지의 결과

입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세상을 다스리라는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욕심과 무지의 결과로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느님의 축복인 출산과 노동은 의미를 상실한 고통으로만 남습니다. 결국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는 욕심과 자비로우신 하느님에 대한 무지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합니다(원죄의 체함). 그러나 <몸의 신학>에서 하느님의 자비가 인간의 죄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고,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도움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정결한 삶(올바르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던졌던 질문,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사고를 당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리를 지켰던지 떠났던지 그들의 선택은 비난받을 대상이 아닙니다(물론, 사고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리를 떠나지 않아서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에서 벗어나 좋은 판단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좋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좋은 판단, 좋은 선택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공된 정보를 근거로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판단하기에 필요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우선으로 판단하는 기준, 생명을 존중하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이기적인 욕심에 있다면 그 욕심 때문에 자신과 타인 모두가 희생당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해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른 타인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지만 결정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정에는 스스로 져야 하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틴스타 안에서는 자기결정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틴스타가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청소년 스스로가 자기결정능력을 갖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간 존재의 가치와 생식력 자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의 기준과 가치를 전달하고,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삶과 행위를 결정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틴스타 교사입니다.

틴스타 선생님, 그동안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왔습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틴스타의 길을 따라 그렇게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틴스타 선생님께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먼저 받았다면 그것은 그 선물을 다른 이들을 위해 함께 나누는 임무가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 여름 방학하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라고 권고하십니다. 교황님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사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난하고 고통 받았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하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우리는 마찬가지로 구세주이신 예수님께도 관심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틴스타 선생님께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표징이 됩니다.

하느님은 이 청소년들을 하느님이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들 안에 하느님다운 면모를 담아 주셔서 참된 생명의 존재이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고, 하느님과 대등한 자유를 지녔으며, 세상을 창조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함께 동반해 주세요.

그들이 자신이 가진 참된 능력을 깨닫고 스스로 좋은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남아 있는 우리가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며 희생된 이들을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이 여정 안에서 비로소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구세주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한 처음 인간을 당신 모습대로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꼭!

우리가 함께 한 여정 안에서 틴스타 선생님께서 인해 가슴 벅차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앞으로도 계속 틴스타 선생님께서 든든하게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 주시기를,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가 함께여서 참 좋습니다. ^o^

2014년 4월 어느 날
하느님을 닮은 틴스타 선생님께 양신부가 보냅니다.
BecauseLOVE

소박한 열정으로 맺어가는 열매

한명례

틴스타 교사 / 제88차 워크숍 수료

사회적 아픔과 슬픔을 담았던 4월을 지내고 맞이한 5월, 실의에 젖어있는 모든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위로와 희망을 담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글을 쓴다.

요즈음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보면 너무 반가워 한 번 더 눈길을 보내곤 한다. 세상에 저렇게 예쁘고 귀한 아이들을.... 그렇게 귀한 또 다른 아이들을 틴스타를 통해 만나기 시작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다. 보람과 사명감이 아닌 무너진 자존심과 밀려오는 자괴감으로 흔들리던 나의 첫 현장 수업이 그렇게 진행 되는 동안, 그 모든 감정은 아이들 때문도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닌, 바로 관계 안에서 내가 해결해 나가야 할 나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몫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망가려고만 했기에 첫 현장의 수업시간은 기쁜 마음으로 임할 수 없었고 발걸음은 늘 무겁기만 하였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좀 더 적극적으로 틴스타를 통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모든 과정 역시 나를 가르치고자 하신 분의 계획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였다.

수업 중에 거울과 빗으로 무장하고 있는 무서운 중2학년도, 점액관찰 해보자고 문자 한마디 보냈더니 ‘개인정보 침해라고 고소하겠다’ 던 아이도, ‘성(性)은 불결하고 기분 나쁘니 절대 질문하지 말라’고 설문지를 채웠던 아

이도, 내가 가르쳐야 할 아이들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배워가야 할 것이 더 많음을 깨우치게 하셨던 하느님의 손길이었음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렇게 나에게겐 힘과 용기가 조금씩 생기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한 지 3년 동안 아기가 없어 안타까워하는 이웃의 새댁을 만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새댁에게 점액관찰을 소개하게 된 나는 그 후로 두 번의 만남을 더 가졌다. 부담을 주지 않으며 조용히 지켜보던 중 3월 어느 날, 새댁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루시아! 고마워 마음 써줘서... 아기 가졌어~~ 호호호, 입덧이 너무 심해 우리 딸이 대신 꼭 전화 하라고 했어” 새댁의 어머니가 3주차라고 하신 것 같은데 몇 주차라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는지 재확인할 틈도 없이 그냥 내 일처럼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갖고 싶어 기도로 준비하던 새댁이, 입덧이라는 과정을 통해 엄마가 되어가고 있는 새댁 마리안나가 건강하게 순산하고, 세상에 태어날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마음 놓고 자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본다.

그리고 학생들을 향한 소박한 열정으로, 앞으로 만나야 할 학생들을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는데 작은 조약돌 하나라도 놓아주는 마음으로 다가가리라.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가슴으로 품어 전하리라.

지나간 시간이 가져다 준 소중한 경험을 통해 얻은 열매를 검손되어 바라보며 조용히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해야겠다.

중학교 프로그램을 마치며~

- 휘경여자중학교 -

나는 살아 있는 것 자체로
소중한 존재!

남녀의 차이와 성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올바르게 사는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

몸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었다.

많은 성교육을 받았지만
틴스타처럼 재미있고
자세하게 알려주는
성교육은 없었다.

성은 아름답고 특별하고
신기한 것 같다.

이성친구가 생기면 틴스타에서
배운대로 올바르게 행동해야겠다.

틴스타를 통해 타인의 느낌이나
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기까지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었다는 것을 알았다.

수업을 통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생겼다.



내 몸에 새겨진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유 예 원

‘총체적인 성’ 수업참가자 / 부산가톨릭대 간호학과 1학년

‘풍요로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고민하던 나는 내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형제들 간의 사랑, 주변 친구들과 선배들에게 받은 사랑, 선생님들께 받은 사랑 그리고 전에 만났던 이성 친구들에게 받은 사랑도 있었다.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약 20여 년 동안 살면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받아온 부모님의 사랑이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풍요로운 사랑이라 생각되었다.

내가 실망을 안겨주는 행동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과연 끝까지 내 곁에서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을까? 끝까지 내 곁에 남아 줄 사람은 분명 부모님이라고 확신한다.

한창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특히나 부모님 속을 많이 썩었던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이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때 나는 친구들과, 선배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좋지 않은 행동을 많이 했었다. 친구들과끼리 패싸움도 하고 심지어 물건을 훔치는 일까지 했었다.

수업을 일찍 마친 어느 토요일 선배들과 친구들이 함께 대형마트에 가게 되었다. 그때 언니들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가방에 담으라고 하며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딱히 갖고 싶은 물건은 없었지만,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이것저것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다. 당연히 우리는 발각되었고, 대형마트 사무실 같은 곳에 끌려가서 부모님을 호출해야 했다. 친구들의 부모님이 한분씩 오실 때마다 나는 혼날까봐 두려운 마음 밖에 들지 않았다.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한 친구의 어머니가 오셨다. 어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돌아가면서 빵을 때리셨다. 내 볼이 뜨거워졌을 때,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내가 빵을 맞으면서 친구 어머니 뒤에 서 있는 아빠와 눈이 마주쳤기 때문이다. 내 모습을 본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내가 훔친 물건의 값을 계산하고 나오셨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아무 말이 없어, 숨 쉬는 것조차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긴장감 속에서 집에 도착했을 때, 아빠가 말했다. “스티커 몇 장이 얼마나 한다고 그런 걸 훔쳤어? 아빠는 오늘 처음으로 실망했다. 나쁜 짓인걸 알면서도 했다는 게 더 잘못된 행동이야.” 나는 그 날,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반성문을 썼고, 아빠는 내 반성문을 보고, “아빠가 앞으로 너 믿어도 되지? 엄마한테는 말 안했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라.”고 하셨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눈물이 났다. 친구 엄마에게 맞았던 것보다 아빠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아빠를 실망시키고, 마음 아프게 했던 게 정말 서러웠기 때문이다.

그 후에 다시는 그런 행동을 저지르지 않게 되고, 지금까지도 그때 일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채찍질이 아닌 따뜻한 사랑으로 아빠가 내 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만약 아빠가 그때 나를 때리고 혼내기만 했다면, 또 나를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진심으로 반성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렇게 바른 길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 틴스타 프로그램 ‘총체적인 성’ 4단원을 위한 과제 중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여성의 존엄』

마리아 해에 즈음하여 발표한 여인의 존엄과 소명에 관하여,

박정우 신부

한국틴스타 지도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1988년 8월 15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발표한 이 문서는 마리아 해(1988)를 기념하는 문헌이므로 마리아가 여성으로서, 또 여성 역할의 모범으로서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마리아가 오늘날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존엄성과 소명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특히 교황은 6항에서 11항에 걸쳐 ‘몸의 신학’의 주제들을 논한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계획에 따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셨는데, 하느님 모상인 인간은 이성과 자유의지를 지니며 서로 자신을 내어주는 인격적 통교를 통해서만 자신을 완성시킬 수 있다. 남자와 여자는 삼위일체인 신적 본성을 닮아서 둘이 하나가 되는 일체성을 표현하며,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면서 서로 돕고 보완하며 완성해 가는 소명을 받게 되었다. 교황은 이것을 ‘배우자적(혼인적) 특성’이라고 부른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의롭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자유를 남용하고 하느님과 대립하면서 ‘원죄’를 짓게 되었고, 죄는 이제 인간을 어느 정도 ‘하느님과 닮지 않음’의 상태로 만들어 버렸고, 남녀의 관계는 “성실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역할”에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관계, 서로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아니라 욕정과 쾌락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3장15절은 죄악을 극복할 “첫 복음”, 즉 “여인”의 후손 중에서 구원자가

나타나 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힐 것이라는 말씀을 전한다.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구속자와 더불어 투쟁하시는 저 ‘여인’의 사명”을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며, 마리아야말로 새로운 시작과 창조와 증인이라는 것이다. 새 하와로서의 마리아는 “하와로부터 시작되는 여성의 신비를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사람의 아들이 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잉태함으로써 자신을 성실하게 내어놓는 풍요로운 여성성을 보여주셨다. 새 창조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선물로서 내어놓는 역할, 이것이 하느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여성성의 핵심이다.

또한 교황은 여성의 소명으로서의 ‘모성’을 강조하는데, 생물학적 차원의 모성은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인격적 차원과 연결되며, 다른 한편 영적 모성은 가정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포함하여 타인을 돕는 다양한 활동 안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여성의 존엄성은 이렇게 창조주께서 의도하신 여성의 소명을 온전히 이행하는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여성의 소명은 남성을 포함하는 교회의 소명이기도 하다. 이제 그리스도의 정배(신부)로서 불림 받은 교회는 여성성의 풍요로움을 간직하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할 소명을 받고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 문헌은 ‘한국주교회의’ 홈페이지(문헌마당) 교황문헌에서 ‘여성의 존엄’을 검색하면 e-book으로 읽을 수 있다.

한국틴스타 행사 및 소식

- ☆ 3월에 부산교구 울산 병영성당에서 김혜정 선생은 틴스타 소개특강을 하였고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내년 초 울산지역에서 한국틴스타 지도자과정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 ☆ 4월에 제9판 교재수정작업을 위한 교정팀이 구성되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 ☆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생명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제8차 생명운동 실무자 연수가 「청소년 생명교육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의 주제로 청주교구 연수원에서 개최되었고 변수운 수녀는 ‘한국틴스타의 성·생명·사랑 교육활동과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 ☆ 사목정보 5월호(미래사목연구소에서 발행)에서 특집으로 다루어진 ‘성(性)교육을 성(聖)교육으로!’에 김혜정 선생은 ‘틴스타를 통해서 본 교회 내 청소년 성교육 실태’란 주제로 글을 실었다.
- ☆ 6월 2일부터 3일까지, 착한 목자 수녀회의 직원봉사자 역량 강화 교육이 강원도 ‘다물피정의 집’에서 진행되었고, 변수운 수녀, 박경희, 김혜정, 함광란, 주설령 5명이 참석했다.
- ☆ 제8차 국제틴스타 대회가 독일 베를라이드에서 2014년 7월 31일부터 8월4일까지 개최된다. 한국에서는 6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국제틴스타의 동향과 더 보완된 연구 발표들을 통해 참가자들의 의식고취로 한국틴스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
- ☆ 삼성 “꿈” 장학재단의 지원으로 2013년 2곳의 시범 현장을 거쳐 2014년 상반기엔 3곳에서 현장이 열리고 있다. 서울 관악교육네트워크(총), 서울 유프라시아의 집(고), 인천 선민지역아동센터(고)이다. 하반기에는 서울, 인천, 광주지역에서 5곳이 진행 될 예정이다.

서울

분기별 월요일마다 서울지역 교사모임이 있다. 2월에 이어 5월에 두 번째 모임이 있었다. 또한 각 현장을 중심으로 교안나눔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

매월 셋째주 월요일 정기 월 모임을 갖고 있으며 현장 나눔과 도움 요청 사항들을 나누고 있다. 또한 생명 관련 소식들을 나누며 틴스타 정신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사명감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다.
올 상반기에는 인천 지역별 교사 명단을 정리하고 구역별 교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인천 교사 재모임을 예정하고 있다.

대구

4월 13일에 본부 변수운 수녀는 대구틴스타를 방문하여 한국틴스타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였고 교사들을 격려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5월달 교사회의에선 6월에 예정된 112차 대구워크숍에 대한 준비모임으로 좋은 의견을 함께 나누었다.

☆ 한국틴스타와 착한목자수녀회가 함께하는 화해 피정 안내

- 주관 및 주최 : 한국틴스타 / 착한목자수녀회
- 대상 :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 (선착순 8명, 당일 접수 안 됨)
- 일정 : 월 1회 개최 (2박 3일) 첫째 날 오후 3시~ 마지막 날 오후 1시30분
- 날짜 : 6월16일(월)~18일(수), 7월 7일(월)~ 9일(수), 8월26일(화)~28일(목)
- 장소 : 경기도 가평 성 빈센트 환경마을
- 참가비 : 한국틴스타에서 전액 후원
- 문의 및 접수 : (02)755-2629

이미 낙태한 적이 있는 여성들을 위하여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99항에서 발췌 -

여성은 낙태 후에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러한 여성들을 위하여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이제 본인은 이미 낙태를 한 적이 있는 여성들에게 특별히 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는 많은 요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 무척 고통스럽고 거의 절망적이기도 한 결정이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상처는 아마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났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 일은 분명히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러나 실망에 굴복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이해하고 정직하게 그 일을 마주 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겸손과 신뢰로 여러분 자신을 참회에 내맡

기십시오. 자비로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이며, 화해의 성사 안에서 당신의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국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지금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의 아기에게 용서를 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친절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고통스러운 체험의 결과로, 여러분은 생명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지닌 권리에 대한 웅변적인 옹호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아기들의 출산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자기들과 친밀한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보살피는 생명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은 인간 생명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의 주창자들이 될 것입니다.”

※ 이 문헌은 '한국주교회의' 홈페이지 생명운동본부에서 자료를 인용하였다.



종교 현황

분류	지역	현 장 명	담 당 교 사	종료일
종교 단체	경북	근화여자고등학교(고)	장영미 선생	2014. 3. 1
		대구	동천동 성당(중)	조영희, 이일현(남학생3-5단원) 선생
	죽전 성당(고)		전수영, 이일현(남학생3-5단원) 선생	2014. 3. 2
	죽전 성당(고)		전수영 선생	2014. 2.23
	하양 성당(중)		최경옥 선생	2014. 2.26
	문덕 성당(중)		신현옥 선생	2014. 5.10
	서울		청담동 성당(중)	김혜정 선생
	인천	연수동 성당(중)	이병주 선생	2014. 3.25
			손문희, 김기환(남학생4-5단원) 선생	2014. 3.25
		범박동 성당(중)	조정옥 선생	2014. 5.13
기관	경북	오투기 쉼터(중)	임광희 선생	2014. 3.11
기타	대구	시지포래모임(고)	서영예 선생	2014. 2.23

진행 현황

분류	지역	현 장 명	담 당 교 사	시작일	
학교	광주	대성여자고등학교(고)A반, B반	강미숙 선생	2014. 3.21	
		대성여자고등학교(고)A	김은경 선생	2014. 3.19	
		대성여자고등학교(고)B		2014. 3.21	
		대성여자고등학교(고)A	박경단 선생	2014. 3.18	
		대성여자고등학교(고)B		2014. 3.20	
		대성여자고등학교(고)A	박현화 선생	2014. 3.17	
		대성여자고등학교(고)B		2014. 3.18	
		대성여자고등학교(고)C		2014. 3.20	
		대성여자고등학교(고)		2014. 3.20	
		대성여자고등학교(고)A	이명호 선생	2014. 3.18	
		대성여자고등학교(고)B		2014. 3.20	
		대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중)	박광훈 신부	2014. 3.15
	대구가톨릭대학교(중)		백민주 선생	2014. 3. 4	
	대구가톨릭대학교(중)A반, B반		김정숙 선생	2014. 3.11	
	대구가톨릭대학교(중)A반, B반		이승현 선생	2014. 3. 5	
	대전	대전가톨릭신학대학교(중)	하정용 신부, 조정옥 선생	2014. 3. 6	
	부산	부산가톨릭대학교(중)A반, B반	김혜정 선생	2014. 3. 7	
		무학중학교(중)A반, B반	김길환 선생	2014. 3.26	
			김영숙 선생	2014. 3.20	
			이연복 선생	2014. 3.20	
		서울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강정애 선생	2014. 4.16
				박경숙 선생	2014. 4.16
				이필숙 선생	2014. 4.16
				임복규 선생	2014. 4.16
				주설령 선생	2014. 4.16
				한명례 선생	2014. 4.16
				김동렬 수사, 김혜선(남학생 4단원)수녀	2014. 3.22
		회경여자중학교(중)A반, B반	김길환 선생	2014. 3.31	
	회경여자중학교(중)A반, B반	박진경 선생	2014. 3.31		
	충남	대전여자고등학교(고)	권선희 선생	2014. 4.14	

진행
현장

분류	지역	현 장 명	담 당 교 사	시작일
종교 단체	광주	진월동 성당(고)	박하영 선생	2014. 3. 9
			신동일 선생	2014. 3. 9
		진월동 성당(중)	김은경 선생	2014. 3. 9
			오성환 선생	2014. 3. 9
		진월동 성당(총)	박경단 선생	2014. 3. 9
			김금남 선생	2014. 3. 9
		하남동 성당(고)	김동하 신부	2014. 3.16
	김지현 선생		2014. 3.23	
	하남동 성당(중)	문현숙 선생	2014. 3.16	
		김영환 선생	2014. 3.23	
	대구	문덕 성당(중)	엄선희 선생	2014. 3.15
		문덕 성당(총)	신현옥 선생	2014. 2.15
		선산 성당(중)	이일현 선생	2014. 3.15
			권소영 선생	2014. 3.15
		선산 성당(총)	이영숙 선생	2014. 3. 8
	장성 성당(중)	서성진 선생	2014. 3.30	
		박인영 선생	2014. 3.30	
	서울	일원동 성당(총)	변수운 수녀	2014. 3.12
		성가소비녀회(총)	박성은 수녀	2014. 3. 9
		예수수도회(총)	김수경 수녀	2014. 4. 9
		한국순교복자수녀회(총)	박진경 선생	2014. 3. 5
	인천	송도국제도시 성당(중)	변경미 선생	2014. 3.29
			김희옥 선생	2014. 3.29
		연수동 성당(중)	유재분, 김기환 선생	2014. 3.29
	연수동 성당(중)	손문희, 김기환 선생	2014. 1.11	
	제주	이시돌지역 수도자(총)	김은지 수녀	2014. 2.14
	기관	대전	청소년 쉼자리(중)	박소영 선생
서울			관악구 교육네트워크(총)	김혜정 선생
		유프라시아의 집(고)	김혜정 선생	2014. 4.12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총)	변수운 수녀	2014. 4. 4
김혜선 수녀			2014. 4. 4	
인천		작전도서관(고)	황윤정 선생	2014. 5. 3
제주	생명의 샘(총)	김은지 수녀	2014. 2.27	
기타	대구	구수산도서관(총)	오경애 선생	2014. 4.15
	인천	선민지역아동센터(고)	김성연, 이병주 선생	2014. 4. 8



알/림/방

☆ 2014년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진행 현황

제112차 대구

- 주관 : 한국틴스타 본부
- 주최 : 한국틴스타 대구지부
- 기간 : 6월14일(토)~15일(일), 21일(토)~22일(일)
- 장소 : 대구대교구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제114차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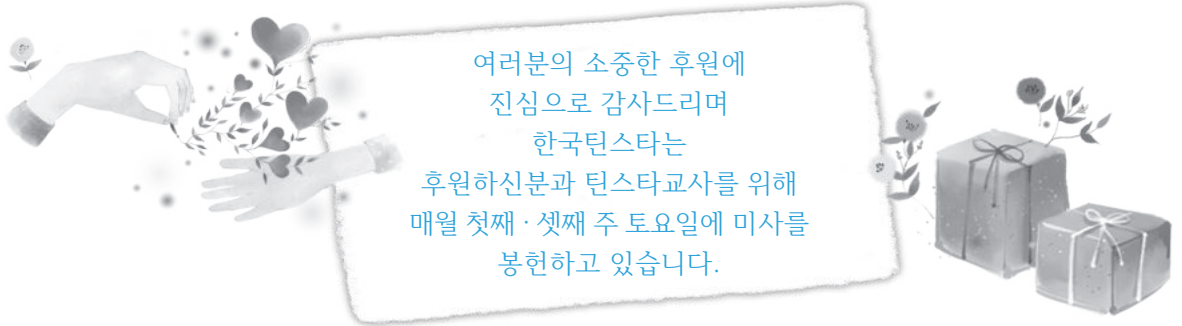
- 주관 : 한국틴스타 본부
- 주최 : 광주대교구 사목국 가정사목부
- 기간 : 7월 5일(토)~6일(일), 12일(토)~13일(일)
- 장소 :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제113차 서울

- 주관 : 한국틴스타 본부
- 주최 : 한국틴스타 본부
- 기간 : 6월30일(월) ~ 7월 3일(목)
- 장소 : 노동사목회관(보문동)

제115차 인천

- 주관 : 한국틴스타 본부
- 주최 : 인천교구 생명사랑운동본부, 청소년사목국
- 기간 : 9월13일(토)~14일(일), 20일(토)~21일(일)
- 장소 : 인천교구 가톨릭회관



☆ 한국틴스타 후원 안내

한국틴스타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일어나갑니다.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있는 CMS 신청서를 이용해 주시거나 본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후원통장 : 우리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 1005-100-998647
국민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 875401-01-517401
신한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 100-021-644868
외환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 611-016668-535

발행일 : 2014년 6월 1일

발행처 : 한국틴스타

주 소 : 서울 중구 명동길 80번지 가톨릭회관 603호

전 화 : 02)755-2629

발 행 인 : 변수운 바울라 수녀

홈페이지 : www.teenstar.or.kr

E-mail : kteenstar@hanmail.net

팩 스 : 02)727-2243